

일제 강점기 문학사 기술에 나타난 역사문학의 성격*

강 미 정**

1. 서론
2.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 경향과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태도
 - 1)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 경향
 - 2)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태도
3. 문학사 기술에서 역사문학의 효용
 - 1) 역사문학 장르와 문학사
 - 2) 역사적 사건의 형상화와 문학사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했는가? (소설,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 등에 대한 인식과 평가)’,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에 대한 관심이 문학사 연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소설,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 등의 효용성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당시의 문학사 연구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일제 강점기 문학사 기술은 전사(또는 통사)로서 조선문학사 전반을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 근대 이후 이른바 ‘신문학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사로서의 문학사에서는 조선문학(소설)의 역사적 발전을 중시하는 데 비해, 신문학사에서는 이식문학론 또는 정체성론 등에 기울어진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전자의 경우 신화, 전설, 야사와 야담류 등의 가치를 긍정적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49004).

**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lala0816@smu.ac.kr)

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 문학의 형식과 구조, 문체 차원에서 역사소설조차도 긍정하지 않는 경향이 우세하다.(질문 1)

일제 강점기 문학사 기술에서는 1900년대 역사·전기류에 대해서는 전사와 신문학사 모두 일정한 해석을 가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전사로서의 문학사 연구에서 신화, 전설, 야사와 야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역사문학의 효용성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질문 2)

* 주요어: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 문학사, 전사(全史), 신문학사

1. 서론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역사소설’, ‘전설’, ‘야사와 야담’이 급증했는데 이는 식민시대 역사교육의 부재와 다양한 한국사 왜곡 상황에서 역사적 제재를 대상으로 한 야담과 소설이 창작되거나 전통적인 야사와 전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이른바 과학주의를 천명한 ‘조선 연구(조선학)’가 제창되고, ‘조선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문학’을 문학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당시의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사문학에 관한 논의는 역사소설과 1930년 전후의 야담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사문학의 주요한 작품군에 역사소설, 야담 등이 포섭되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역사소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시대별로 개략적으로 정리한다면, 1980년대에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특징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 송백헌, 김치홍, 홍성암 등의 연구로부터,¹⁾ 1990년대에 일제 강점기와 조선후기의 역사소설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한 박종홍, 문철주, 정경운, 권혁래 등의 연구,²⁾ 2000년대 이후 근대역사소설의 장르에 대한 논의, 근대 신

1) 송백헌, 「한국근대 역사소설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김치홍, 「한국근대 역사소설의 사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문에 연재되었던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등에 대한 통시적 논의,³⁾ 일제 강점기에 역사소설가로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거나, 일제 강점기 구할자본 역사소설을 연구한 경우⁴⁾ 까지 들 수 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야담과 관련된 연구로는 역사에 대한 관심과 야담 부흥운동과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 논의한 김준형⁵⁾, 이동월⁶⁾, 이승윤⁷⁾, 신상필⁸⁾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 2) 정경운, 「한국 근대역사소설의 서사 특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3) 공임순, 「한국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지연, 「구할자본 역사영웅소설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권영기, 「한일 근대 역사소설 비교연구-초기 역사소설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임옥규, 「북한 역사소설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병길, 「한국 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승윤, 「한국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필사본 중국 역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4) 이재용, 「이광수와 김동인의 역사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신승호, 「일제강점기 구할자본 역사소설 연구 : 임진왜란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5)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0, 민족문학사학회, 2002, 152~153쪽 참고. 김준형은 1920년대 후반의 김진구의 야담 관련 기사를 근거로 당시의 야담은 조선조 야담집이 지향했던 이야기문학에 대한 지향보다는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조선조와는 전혀 다른 야담을 지향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야담의 지향점은 민족, 민중, 계몽을 강조하면서 민중 교화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 6) 이동월, 「1920년대 후반 야담운동 연구」, 『한국말글학』 23, 한글말글학회, 2006, 269~270쪽. 이동월은 1920년대에 신문과 잡지에 역사물이 많이 실린 것과 김진구가 야담의 본질을 역사의 줄거리로 인식한 것 등을 들어 야담이 당시에 민중의 역사교육을 위한 방편이 되었음을 논의한 바 있다.
- 7) 이승윤, 「1920~30년대 역사를 통한 민중계몽과 양식 실험-야담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배달말』 41, 배달말학회, 2007, 179~202쪽. 이승윤은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른 시기보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역사의 문예화가 운동 차원에서 확산되면서 야담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논의한 바 있다.
- 8) 신상필, 「야담의 근대적 전환과 대중문화로서의 기획」, 『동남어문논집』 45, 동남어문학회, 2018, 93~94쪽. 신상필은 1910년대의 출판사를 통한 근대야담집의 출현은 전근대 야담의 토대 속에서 발전된 것이고, 1920년대 김진구가 주창한 야담운동은 역사적 민중교화운동으로의 성격으로 옮겨간 것으로 그러한 야담운동은 강담사의 공연이라는 대중예술의 현장성도 갖게 되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역사문학이라는 용어는 『조선일보』 1937년 8월 29일~9월 4일 연재된 한식의 「문학상의 역사적 제재」에서 사용된 것으로 ‘역사소설, 역사극, 역사동화’ 등의 장르를 포괄하여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을 제재로 한 문학 작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역사물로서의 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전설 채집이 이루어졌으며, 독서물로서 사화(史話)가 널리 유포되고 야담운동이 본격화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역사소설’ 뿐만 아니라 장르를 포괄한 ‘역사문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당위론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및 효용성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질문 1]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했는가? (소설,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 등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질문 2]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에 대한 관심이 문학사 연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소설,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 등의 효용성은?)

위의 두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다양한 논의를 고민케 한다. 우선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은 개념과 장르 설정부터 구체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논의해야 할 주제도 매우 많다. 그렇기에 [질문 1]의 답을 찾는 것이 지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의 ‘조선 알기’, ‘역사 의식 고취’와 밀접했던 신화, 전설, 야사, 야담 등의 작품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관심과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프로 문학이론이 도입된 후 활발했던 리얼리즘 논쟁이나 대중 독자 논쟁 속에서 신화와 전설, 야사, 야담 뿐 아니라 역사소설까지도 통속문학으로 간주되면서 그 의미가 폄하되는 현상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서물에 신화, 전설, 야사, 야담이 속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역사 연구 차원에서 출발한 육당의 신화에 대한 관심이나 ‘조선 연구’ 차원에서 부흥되었던 전설 채집과 야사와 야담 발굴 등

도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될 것이다.

[질문 2]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다수의 문학사 관련 서술에서 역사소설뿐만 아니라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류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한국 문학사 또는 소설사 연구물을 대상으로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문학사 기술에서 역사문학의 효용성’ 등을 분석해보려 한다.

2.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 경향과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태도

1)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 경향

[질문 1]에서 제기한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에서 역사문학, 좀 더 구체적으로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으로 당시의 문학사 연구 성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도 ‘문학사란 무엇인가?’, ‘어떤 연구가 있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문학사 연구 성과에 대한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양영길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갈래 체계를 검토하면서 안확의 『조선문학사』는 단순 재단의 차원,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는 보다 체계화, 세분화 되어 있고, 임화의 『신문학사』는 갈래 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⁹⁾ 김준형은 식민지 시대에 조선문학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에 따라 안확의 문학사는 ‘정신사로서의 문학사’, 김태준의 문학사는 문헌학으로서의 문학사, 과학적 실증주의 문학사를 실천한 산물이라고 주장했다.¹⁰⁾ 임형택은 조운제의 『국문학사』는 파시즘의 인류적 폭력과 민족적 위기에 학적으로 대응한 산물이고,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조선한문학사』 및 『조선가요론』

9) 양영길, 「한국 근대문학사 구성 방법 연구-일제 강점기에 저술된 문학사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 영주어문학회, 2000, 138쪽.

10) 김준형, 「한국문학사 서술의 경과-고전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4, 민족문학사학회, 2010, 170쪽.

은 분류사에 해당되고 국문학의 초석이 되었다고 보았다.¹¹⁾ 류준필은 안학의 『조선문학사』는 국민의 심적 현상의 발달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선문학사』의 마지막 절이 자각론이라는 점을 들어 정신의 자각 단계를 과제로 삼은 저술이라고 논의했다.¹²⁾ 그리고 강용훈은 1920년대부터 조선에서 문학(혹은 예술)과 역사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고찰되었는데 그러한 연구의 선구적 업적은 안학의 『조선문학사』에서 구현되었고, 1930년대 대표적인 문학사라 할 수 있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는 조선 문학의 개별 장르에 대한 통시적 서술을 시도하고 조선문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제도화 과정을 보여준 저작물이라고 보았다.¹³⁾

이로 본다면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문학사 연구로는 안학의 『조선문학사』(1922, 한일서점)를 ‘문학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최초의 저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또 다른 문학사 저술로는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1931, 조선어문학회, 한성도서주식회사), 『조선소설사』(1933, 청진서관, 1939년 학예관, 박문서관 증보판)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문학의 개념을 ‘정적 학문으로 미(美)를 구하고자 하는 문장’으로 규정하고 한글 이외의 조선 한문학사를 재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후자는 조선 소설의 발전사를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술된 것이다.

『조선한문학사』는 1931년 조선어문학 총서 [1]로 조선어문학회(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하였는데, 서론(緒論) 제2장 「조선 한문학사의 범위」에서 “조선 한문학은 또 조선문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만큼 테리케트하다. 이 점은 임이 줄저 「조선소설사」의 모두(冒頭)에 상론(詳論)한 바 있으므로¹⁴⁾”라

11) 임형택, 「한국근대의 “국문학”과 문학사 -1930년대 조운제(趙潤濟)와 김태준(金台俊)의 조선문학연구」,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학회, 2011, 212쪽.

12) 류준필,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그 지정학적 함의 - 자국(문)학 형성의 맥락에서」, 『한국학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107쪽.

13) 이뿐만 아니라 윤영천, 「일제 강점기 및 해방기 한국 리얼리즘 시론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 23~35쪽; 김성수, 「남북한 현대문학사 인식의 거리-북한의 일제 강점기 문학사 재검토」, 『민족문학사연구』 42,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74~98쪽. 등의 논문도 간접적으로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4) 김태준, 「서론 제2장」, 『조선한문학사』, 조선어문학회(한성도서주식회사), 1931, 3~4쪽.

고 진술하여, 『조선한문학사』 집필 이전에 『조선소설사』가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소설사』는 『동아일보』 1930년 10월 31일부터 1931년 2월 25일까지 68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단행본 출간은 『조선한문학사』가 먼저 이루어진 셈이다.¹⁵⁾ 또한 『조선소설사』는 신문 연재물로 시작하여 1939년 증보판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점기 한국문학사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어 온 저서이다.¹⁶⁾

일제 강점기 단행본 출판물은 아니지만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와 「속(續) 신문학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활발했다. 엄밀히 말하면 임화는 식민시대 프로문학 이론과 대표적인 식민사학의 한 갈래인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따른 ‘정체성론’을 전제로 한 문학사를 구성한 사람이다. 임화 외에도 일제 강점기 신문 연재물로서 문학사를 서술한 예는 더 많이 발견된다. 1920년대 말부터 19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폐간 직전까지 짧게는 ‘문단 회고’ 형식의 연재물로부터 40회에서 60회에 이르는 조선문학 전사(全史) 또는 신문학사 관련 다수의 연재물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역사문학 논의의 기본 자료가 되는 전사, 신문학사, 소설사 관련 연재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¹⁷⁾

15) 그간 『조선한문학사』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경우로는 최영성, 「김태준의 학술연구와 국고정리작업 -『조선한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6, 한민족어문학회, 2005; 홍석표, 「호적과 김태준의 문학사서술의 특징 -『백화문학사』와 『조선한문학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22, 중국어문학회, 2006; 구지현·최재원,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朝鮮漢文學史)의 인용 문헌 활용 양상 연구」,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2022. 등을 들 수 있다.

16) 류준필, 「金台俊의 『朝鮮小說史』와 『增補 朝鮮小說史』對比」, 『한국학보』 23-3, 일지사, 1997, 112쪽. 류준필은 『조선소설사』와 『증보 조선소설사』를 비교하면서, 삭제, 첨가, 수정된 내용을 대비하고 그 구체적인 차이의 양상을 정리한 바 있다.

17) 향가와 고려가요, 시조 등의 조선 가요, 연극사 등과 관련된 연재물도 다수 발견되나 이 연구에서는 역사문학과 관련된 논의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시하였다.

〈표 1〉 1920년대 말~1940년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학사 관련 연재물

번호	연월일	신문	필자	제목	연재	비고
1	1929.01.01.~ 02.02.	조선일보	팔봉학인 (김기진)	십년간 조선 문예 변천 과정	22	1920년대 이후
2	1929.07.28.~ 08.16.	조선일보	김동인	조선근대 소설고	17	이인직과 이광수 중심
3	1930.01.01.~ 01.11.	동아일보	정노풍	文壇의 回顧와 展望	8	1920년대 이후
4	1930.10.01.~ 1931.01.17.	조선일보	안자산	朝鮮文學史	20	태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5	1930.10.31.~ 1931.02.25.	동아일보	김태준	조선소설사	68	전사(소설사). 1933년 청진서관, 1939년 학예관, 박문서관
6	1934.10.27.~ 11.02.	조선일보	김태준	朝鮮文學의 歷史性	5	주제(역사성)
7	1939.01.01.~ 01.08.	조선일보	김태준	支那文學과 朝鮮文學과의 交流	3	주제(교류)
8	1939.01.01.	조선일보	홍명희 (벽초)	諺文小說과 明清小說의 關係	1	주제(교류)
9	1939.09.02.~ 12.27.	조선일보	임화	概說 新文學史	51	근대 이후 문학사
10	1940.02.02.~ 05.10.	동아일보	임화	續新文學史	48	근대 이후 문학사
11	1940.01.13.~ 01.20.	동아일보	임화	朝鮮文學研究의 一課題	6	대상, 토대, 환경, 전통, 양식, 정신
12	1935.07.04.~ 07.16.	조선중앙 일보	임화	역사적 반성예의 요망		임규찬·한진일 (1993) 소재
13	1935.10.09.~ 11.13.	조선중앙 일보	임화	조선신문학사 서설-이인직으로 부터 최서해까지		임규찬·한진일 (1993) 소재 ¹⁸⁾

18) 임규찬·한진일,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이 연재물 가운데 1(김기진), 3(정노풍)은 문단 회고 형식으로 평론에 가까운 글이며, 6(김태준, 역사성 문제), 7(김태준, 중국문학과의 교류), 8(홍명희, 중국소설과의 관계) 등은 특정 주제와 관련한 문학사로 볼 수 있다. 또한 2(김동인)는 「근대소설사」라는 제목을 사용하였으나 이인직과 이광수의 작품을 증점적으로 소개한 글이며, 4(안화)의 「조선문학사」는 1923년 연구의 연장선에서 쓰인 연재물이라고 볼 수 있다. 5(김태준)는 앞서 설명한 『조선소설사』의 토대가 된 연재물이며, 9~11(임화)의 「신문학사」는 문학사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배경(물질적 조건)으로부터 근대 이후의 문학사를 서술한 연구물이다. 12~13(임화)은 1935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것이다.¹⁹⁾

2)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태도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는 서술 대상과 범위에서 연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문학에 대한 개념 규정과 연구 의도에서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서술 대상과 시대 구분, 서술 내용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선문학사 연구를 천명한 안화, 김태준, 임화의 문학사 구성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화, 김태준, 임화는 ‘문학’이 ‘미적 정감’을 포함한 언어의 예술이라는 사전적 개념을 공유한 점은 공통된다. 사실 한국 문학사에서 ‘문학 = 언어예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10년 3월 『대한홍학보』 제11호에 실린 이보경(李寶鏡)의 「문학의 가치」 이후로 볼 수 있다.²⁰⁾ 이광수는 문학이 영어

19) 임화의 「역사적 반성예의 요망」에 대한 다음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 최현희, 「문학주의적 주체론과 역사의 이념- 임화의 신문학사론 재고-」, 『개념과 소통』 19, 한림과학원, 2017, 68~69쪽. 최현희는 「조선신문학사론 서설」과 「역사적 반성예의 요망」 등 임화의 글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이 글들이 임화의 신문학사론의 전사(前史)를 이루는 글이라고 언급한다.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에서의 ‘신문학’은 ‘근대적’인 조선문학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역사적 반성예의 요망」에서의 ‘신문학’은 프로문학 이전의 조선근대문학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

20) 이보경(李寶鏡)은 이광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임화는 『조선일보』 1939년 9월 7일 「개설 신문학사(3)」에서 “六堂의 詩와 春園의 小說에서 새로운 意味의 文學은 實現되고 「文學이란 何요」(大正四年?)라는 『每日申報』에 실린 春園의 論文, 『青春』第十二號(大正七年三月) 실린 懸賞文藝 後言 등에서 理論적으로 規定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보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논문은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14년 『학지

Literature를 번역한 용어임을 밝히고, 과학 언어와 달리 문학은 시가, 소설 등과 같은 것을 지칭하며, 그 범위가 모호하나 ‘정적 분자(情的 分子)를 포함한 문장’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14년 『학지광』 제3호에 실린 최두선의 「문학의 의의에 관하여」에도 나타난다. 이처럼 문학을 언어 예술로 규정할지라도 문학사 연구자가 주목하는 문학 현상은 동일하지 않다. 안학의 문학사에서는 ‘사전(史傳), 일기(日記), 수록(隨錄), 계발(啓發)’ 등의 문류를 문학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김태준은 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조선소설사』에서 ‘삼국 설화’, ‘고려 패관문학과 불교문헌’을 폭넓게 다루었으며, 『조선한문학사』에서도 삼국, 고려시대의 문장가와 패관 잡록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비해 임화의 문학사는 ‘새 현실을 새 사상의 견지에서 엄숙하게 순예술적으로 언문일치의 조선어로 쓴 문학’을 ‘신문학(新文學)’으로 규정하고, 육당과 춘원 이후의 문학사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안학과 김태준의 문학사가 문학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전사(全史)를 목표로 한 까닭은 두 사람의 문학사 서술 의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학은 문학사가 ‘일 국민의 심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²¹⁾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선의 문학사를 고찰할진대 언어·풍속·습관과 기후·산천의 변화와 제도·문물의 변천, 각 시대의 정신, 각 위인의 사업 등을 토심(討尋)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조선사(朝鮮史)의 집성이 완전치 못한 금일에 재(在)하여 여(余)의 미력으로 문학사를 건설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지만, “일직이 독사(讀史)의 여가를 득(得)하여 계통적 대강을 초(抄)”했다고 술회하였다.²²⁾

이를 고려하면 안학의 문학사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며,

광』 제3호에 실렸던 최두선의 「文學의 意義에 關하여」라는 논문에서도 ‘문학 = 언어예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21) 이행훈, 「안학의 ‘조선’ 연구와 문명의 발견」,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2016, 217~219쪽. 이행훈은 안학의 조선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언어, 문법, 예술, 종교, 철학, 정치경제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그의 저술들은 조선의 과거를 현재로 끌어 올리는 ‘주체의 고고학적 산물’이라고 한 바 있다.

22) 안학,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2~3쪽.

역사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김태준의 문학사는 전사(全史)로서의 소설사와 한문학사 재구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학 또는 소설 개념으로부터 현대의 문학 개념 형성 과정 및 소설사와 한문학사 전개 양상을 모두 포함하였다. 특히 소설사에서 ‘이조 초창기 전기소설’과 ‘한글 창제’ 이후 제4편 ‘임진 병자란 사이에 발흥된 신문예’라는 부제를 사용하여, ‘신문학’, ‘신문예’ 등의 용어가 근대 이후에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²³⁾ 임화의 「신문학사」는 1935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역사적 반성예의 요망」,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 신문학사 서술에서도 임화는, 이인직 이후의 신소설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그의 주된 관심사는 신문학사를 계승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 있었다.²⁴⁾

1939년 「개설 신문학사」와 「속 신문학사」는 ‘서설’을 확장한 것으로, “신문학사는 조선에 있어서 서구적 문학의 이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동양의 근대문학사는 사실 서구문학의 수입과 이식의 역사”라고 규정한다.²⁵⁾ 그렇기 때문에 『신문학사』 제2장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물질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일제 강점기 주류 식민사학의 한 경향이었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과 ‘정체성론’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문학사 기술은 ‘전사(全史) 또는 ‘통사(通史)’ 차원에서 근대 이전의 문학사를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와 ‘신문학사’라는 명칭 아래 근대 이후, 좀 더 정확하게는 이른바 ‘신소설’ 작가로 규정된 국초 이인직(菊初 李人植) 이후를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뉘어 있다. 안확, 김태준은 전자의 대표적 연구자이며, 임화를 비롯한 김기진, 김

23) 김태준, 『조선소설사』, 청진서관, 1933, 1~2쪽.

24) 최현희, 앞의 논문, 2017, 67쪽. “그의 1930년대 비평 활동은 카프라는 조직 주체의 소멸을 상쇄하기 위한 이론적 차원에서의 ‘주체의 재건’, 카프비평의 도달점이라 할 ‘리얼리즘 창작방법론의 심화’, 카프 중심 프로문학의 문학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문학사 정립’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25) 임화, 「개설 신문학사(3)·(4)」, 『조선일보』 1939.9.7.~9.8. 장문석, 「임화의 참고문헌: 「개설 신문학사」에 나타난 임화의 “학술적 글쓰기”의 성격 규명을 위한 관견(管見)」, 『관악어문연구』 34, 2009, 420쪽. 장문석에 따르면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는 식민지 시기에 형성되었던 학술적 성과를 인용, 재배치, 비판하면서 이루어진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동인 등은 후자에 속하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학사 서술 의도와 구성 방식은 역사문학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안확이 ‘상고시대(단군 건국~삼국시대 이전 소분립시대)’, ‘중고시대(삼국 또는 이국의 대분립 시대)’, ‘근고시대(대분립 시대 이후 귀족시대)’, ‘근세시대(이조 오백년)’, ‘최근문학(갑오경장 이후 현대)’이라는 시대 구분을 통해, 우리 민족의 성립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사를 구성하면서 신화와 가요, 패관문학 등을 포괄하고자 한 것이나,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소설의 일면으로서의 사상 감정은 원시인도 가진 것이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망연(茫然)하나마 삼국시대 이전에 벌써 향가, 민요, 설화, 신도(神道)의 문학적으로 맹아한 기원을 찾을 수가 있고”라고 하면서 ‘조선 소설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으로 ‘설화시대의 소설’을 둔 것 등은 조선소설사에서 역사적 제재가 담겨 있는 신화나 전설, 민담, 전기류 등의 작품이 갖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신문학사를 중심으로 한 임화, 김동인 등의 문학사에서는 문학의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여 작품 구성이나 문체 또는 인물의 성격 창조가 이루어지는 근대문학에 집중한다. 김동인의 경우 “조선의 과거 소설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문헌이 없으니 참가(參加)할 바 없다. 현대에 남아 있는 것은 승려들의 손으로 된 몇 가지의 역사담(歷史談)과 기담(奇談) 외에 춘향전, 심청전 등이 있되, 모두 이야기의 주지(主志)를 전할 뿐, 정본은 구할 수 없다. 그런 지라, 조선의 소설은 역사라 하는 것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조선 근대소설의 원조는 이인직의 『귀의 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²⁶⁾ 김동인은 1930년대 야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잡지 『야담』을 창간하기도 하였다.²⁷⁾ 그럼에도 그의 소설사 기술에서는 신화와 전설, 야담류 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임화의 경우, 벽초 홍명희의

26)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1)」 『조선일보』, 1929.7.28.

27) 신상필, 「김동인의 『야담』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야담의 서사 기획」, 『한민족문화연구』 57, 한민족문화학회, 2017, 254~255쪽. 신상필은 김동인이 월간야담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야담을 창간했으며, 김동인은 야담의 창작에 대하여 상상으로 만드는 이야기므로 소설이라고 보면 소설이라고 하면서 본질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양자간의 차별은 소재의 차이에 두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임꺽정(林巨正)』을 '세태소설'로 규정하는 것과도 일치한다.²⁸⁾

세태소설론 : 또한 內省의 文學과 더불어 世態의인 小說이 漸次로 文壇에 勢力 있는 潮流를 이루고 있는 理由도 現代 作家들의 精神의 能力이 自力 無力의 證明이나 제가 사는 環境에 대한 輕蔑과 惡意의 限界를 넘기가 어려운 데 있다. 이것은 現代 作家의 限界인 同時에 우리 時代의 特色이기도 하다. 蔡萬植 氏의 〈濁流〉나 〈天下泰平春〉, 故金裕貞의 小說, 今年〈朝鮮日報〉의 當選小說 〈남생이〉等 最近 興味 잇다곤 읽은 小說의 大部分의 이런 作品들이다. 甚至於 洪命燾 氏의 〈林巨正〉까지가 이런 데 置重하고 있지 안흔가 한다. (中略) 〈林巨正〉을 世態의인 小說로 一括하여 버린다는 데는 若干의 異議가 잇슬 줄 아나 우리가 世態小說이란 것의 樣式上 特性을 가장 散文의인 데 두었다면 아마 朝鮮 小說 中에 〈林巨正〉만치 超散文의인 小說의 例는 없을 줄 안다. 우리가 小說의 世界를 現代로부터 過去로 옮긴다는 데는 實로 興味 以上の 理由가 잇다고 나는 생각한다. 興味만의 理由로 舞臺를 옮기는 것은 野談의 일이고, 文學의 일은 아니다. 그러타고 小說에 取扱되는 單純한 場所의 移動이 아닌 것도 周知의 일이다. 무엇 때문에 歷史的 現實 가운데 小說 構造의 舞臺를 敎하느냐 하면 歷史的 現實이 우리들의 文學 意識과 어떤 有機的인 關係를 가지고 잇는 때, 作家는 제 小說을 歷史的 現實을 빌어서 構成한다. 이 關係가 現代의 없는 것을 過去에 求하라 할 때 스코트와 같은 浪漫主義가 나타나기도 한다. 李泰俊 氏가 〈三千里文學〉 創刊號 座談會에서 뚜렷한 性格과 壯大한 機構를 가진 픽손을 求하라면 過去의 現實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多分히 이런 點이 있다. 春園의 歷史小說도 全部가 이런 部類에 속한다고 할 수 잇으나 藤森成吉의 〈渡邊華山〉이나 貴司小治의 〈洋學年代記〉 또는 林房雄의 〈青年〉 등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²⁹⁾

임화는 1930년대 중반기 소설의 특징을 사상성을 포함한 내성소설(內省小說)과 세태 묘사를 중심으로 한 세태소설(世態小說)로 구분하고, 이 시기 세태소설이 성행하는 이유는 사상성(또는 내성)의 퇴조와 함께 작가의 무력(無力=무기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세태소설은 “합리적 구조와

28) 임화, 「세태소설론(2)-(4)」, 『동아일보』, 1938.4.2.~4.5.

29) 임화, 「세태소설론(1)-(2)」, 『동아일보』, 1938.4.1.~4.2.

소설 구조의 내적 필연성에 의해 장편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역지의 구성이나 허위의 연결, 비예술적 구성으로 겨우 장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⁰⁾ 이러한 관점에서 『임꺽정』도 세태소설의 하나이며, 역지스러운 묘사가 중심을 이룬다고 보는 셈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은, 전사(全史) 구성 차원에서 안화와 김태준과 같이, 신화와 전설, 전기를 문학사의 논거로 활용한 사례를 제외할 경우, 전통적인 역사물이나 일제 강점기 발굴 또는 창작된 야담류, 소설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장르로서 논의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도 이광수에 대해 “씨는 허생, 마의태자, 단종, 이순신 같은 영웅전을 쓰는 데 능하다. 이를 다시 말하면 조선에 진정한 대작가가 있고, 위대한 비평가가 있고, 감상안(鑑賞眼)이 일반적으로 좀 더 높다면, 씨는 역사소설가(歷史小說家)로서 일세의 명(名)을 독점였을는지 알 수 없었다. 씨는 철저히 애국적, 민족애적, 개인 자유적, 인도주의적 운동에 공헌하여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이³¹⁾ 그 당시 역사소설에 대한 유일한 언급에 해당한다.

임화는 “구소설은 고대소설이라고 불려지는 만큼 소재와 제재, 바꾸어 말하면 배경·무대·인물·사건 등이 모두 과거한 시대의 것이라, 지금 말로 하면 일종의 역사소설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전설이나 신화나 고군담(古軍談) 등 소위 옛날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구소설을 읽었다.”³²⁾라고 서술한다. 여기에 쓰인 ‘역사소설’은 신소설에 대립하는 구소설의 일종으로 ‘전설, 신화, 군담류’와 함께 문학상 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이미 그는 「세태소설론」에서 『임꺽정』을 평론하면서, “역사적 현실이 우리들의 문학의 식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작가는 제 소설을 역사의 현실을 빌어 구성한다.”³³⁾라고 하면서 춘원의 역사소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역사소설이 유기적 관계가 없는 낭만주의에 빠진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문학사

30) 임화, 「세태소설론(완)」, 『동아일보』, 1939.4.6.

31) 김태준, 『조선소설사』, 청진서관, 1933, 184쪽.

32) 임화, 「속신문학사(3)」, 『조선일보』, 1940.2.6.

33) 임화, 「세태소설론(4)」, 『동아일보』, 1939.4.5.

구성에서 역사문학이 자리할 공간은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앞서 제기한 질문 1의 해답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일제 강점기 문학사 기술에서 역사문학의 개별 장르, 구체적으로 신화와 전설, 야담, 역사소설 등에 대한 인식은 전사로서의 문학사를 구성하는 경우와 신문학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큰 차이를 보이며, 후자의 경우 문학적 형상화가 뚜렷한 역사소설 조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다.

3. 문학사 기술에서 역사문학의 효용

1) 역사문학 장르와 문학사

1930년대 역사문학 담론이 본격화되면서, 역사문학의 범위에 속하는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역사소설, 야담, 비사(碑史, 일종의 야사), 전설’ 등이다. 이는 한식의 「문학상의 역사적 제재(3)」를 통해서도 확인된다.³⁴⁾ 그리고 이 시기 역사문학의 개념이나 범위, 장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희소하다. 따라서 문학사에서 역사문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은 근대에 출현한 역사·전기류라고 할 수 있다.

문학 개념어가 확립되고 문학사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근대 역사문학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대상은 『법란서신사』, 『보법전기』, 『서사건국지』, 『월남망국사』 등과 같은 독서물이었다. 안학의 『조선문학사』에서는 이를 ‘역사소설’로 규정하여, “그 소설의 재료는 서양 위인의 사적·정치적 역사 등에서 채(採)한 것이니, 차등 서(書)의 환영은 종래 소설의 권징주의(勸懲主義)에 관(慣)한 안목의 취하기 이(易)한 바라. 고로 문체도 한적(漢籍)의 구투(舊套)를 탈(脫)치 못하고 객관상 사실을 늘어놓음(臚列)에 불과하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신채호를 평하여 “문(文)은 파란(波瀾)이 중중(重重)하고 문채(文彩)가 빈빈(彬彬)하여 가히 박은(朴闇)과 임제(林梯)에 비할지라.”라고 하였다. 그는 신채호의 『이

34) 한식, 「문학상의 역사적 제재(3)」, 『조선일보』, 1937.9.1.

태리건국삼걸전』, 『을지문덕』, 『최도통전』, 『독사여론(讀史餘論)』 등에 주목하면서, 이들 작품에 대해 “근래 역사의 신견지(新見地)를 개(開)함은 씨(氏)의 독창(獨創)에서 출(出)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⁵⁾

이 시기 역사·전기물에 대해 김태준 『조선소설사』에서는 신채호의 『이태리건국삼걸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몽견제갈량』, 『독사여론』 등을 ‘역사소설’이라고 규정하고, “융성한 정치사상과 국가 관념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라고 설명하였다.³⁶⁾ 임화는 “과도기 문학의 선구는 새로운 조선의 정치적 이상을 선전하고, 깨우지 못한 민중을 계몽하려는 의도가 직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치소설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기 역사·전기류를 『금수회기록』, 『몽견제갈량』³⁷⁾ 등과 함께 정치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일제 강점기 문학사 서술에서 1900년대의 역사·전기류와 1920년대 이광수 이후의 역사소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이 시기 문학사 서술에서 역사문학 장르로서 ‘전설’, ‘야담’, ‘역사소설’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문학사 서술에서 역사문학의 한 장르로서 ‘역사소설’을 구성한 것은 광복 이후로 보이는데, 그러한 예로 1949년에 출간되었던 백철의 『조선신문학사 조사·현대편』(백양당)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는 1936년 이후의 문학을 ‘주조(主潮)의 상실과 문학지상주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그 조류 가운데 하나로 ‘세태·시정소설의 성행’과 ‘복고사상과 역사소설’을 두었다. 백철의 세태소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화가 주장했던 ‘세태·현실묘사를 중심으로 한 소설’이라는 의미를 수용한 것으로, 『임격정』을 포함한 다수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역사소설’을 1936년 전후의 시대 조류로 인정한 것인데, ‘암흑한 현실과 정면(正面)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복고사상과 역사소설이 유행하게 된 동기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의 역사소설을 ‘될 수 있는 대로 역사의 사실(史實)을 충실하게 전하여

35) 안확, 앞의 책, 1922, 124~125쪽.

36) 김태준, 앞의 책, 1933, 173쪽.

37)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33)에서 「몽견제갈량」은 신채호의 작품에 포함되었는데 임화의 「신문학사」(1939)에서 밀야자 유원표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현대의 감(鑑)을 삼으려는 작가 의식에서 온 것'과 '현실적 의미에 역점을 두고 사실(事實)을 무시하려는 것'으로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 광수는 전자를 대표하며 홍명희는 후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했다.³⁸⁾ 이 서술은 비록 광복 이후의 서술이지만, 1930년대 역사소설의 성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문학사 서술의 진보된 형태로 보인다.

사실 백철의 경우 일제 강점기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938년 8월에 『조광』 제4권 8호에 게재한 「종합문학의 건설과 장편소설의 현재와 장래」에서 루카치의 소설론에 근거하여³⁹⁾, 장편소설이 고대의 이야기문학 장르-영웅 서사시, 물어(物語: 모노가타리), 전기(傳記), 전설(傳說)-에 대한 '근대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규정하고, 단순한 '이야기소설'과는 달리 근대의 리얼리즘과 자본주의의 모순이 반영된 작품을 장편소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형식뿐만 아니라 근대의 리얼리즘, 개인주의, 자유주의 등의 내용 및 사상적 기반을 아울러 갖춘 소설을 '장편소설'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소설이 장래 영화에 필적할 만한 '종합문학'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그는 장편소설(종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은 근본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서술한다.

長篇小說로서 朝鮮文學의 弱點：前項에서 綜合文學의 形態로서 新長篇小說을 본 것은 長篇小說의 未來에 關한 하나의 理想論에 가까운 것이나, 여기서 그 理想을 前提하고 今日 우리 文壇의 長篇의 現實에 나가는 데는 그 中間에 조선적인 하나의 神話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可할 것이다. 그것은 朝鮮의 長篇小說은 그것이 發生하고 發展될 만한 그 前身의 傳統의인 것을 자기 文學 우에 갖이 못하고 다시는 社會的으로서도 正當의인 發展을 가질 만한 背景을 갖이 못했다는 것이다. 첫째 問題에 있어

38)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 백양당, 1949, 328~329쪽.

39) 백철, 「종합문학의 건설과 장편소설의 현재와 장래」, 『조광』 제4권 제8호, 1938.8, 176~189쪽. 이 논문은 '신장편소설론', '장편소설로서 조선문학의 약점', '세태소설의 의미와 조선 장편의 일현상', '순문학과 대중소설'로 구성되었으며, "장편소설이 본격적인 문학 장르로서 정착된 것은 근대의 리얼리즘 문학으로 나타날 때요, 사회적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건설기로서 절정에 달한 시기"라는 루카치의 이론을 근거하여 장편소설의 특징을 분석한다고 하였다.

朝鮮의 長篇小說은 西歐와 같은 意味에서 長篇 敘事詩의 揚棄도 아니오 또한 이야기나 傳說의 後身으로서 發生된 것도 아니다. 하기가 우리 文壇에 그 長篇小說이 잇기 전에 一種의 長篇 이야기로 여러 가지 英雄과 烈女의 傳記와 哀話, 實記가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形式으로 는 類似한 것이 前身으로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近代의인 長篇小說에 나가는 아무 必然的 要素를 갖지 않은 데는 그 前身은 本來부터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⁴⁰⁾

이 진술은 임화의 문학과 마찬가지로 ‘전통 단절론’, ‘이식문학론’을 전제로 한 설명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장편으로서 ‘서사시’, ‘영웅과 열녀의 전기’, ‘애화’, ‘실기’ 등이 존재했음을 인식한 것은 문학사 기술에서 다양한 형태의 역사문학 장르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역사소설에 대한 또 하나의 논의는 1940년 12월 『문장』 제1권 제11호에 실렸던 현진건의 「역사소설문제」에서도 확인된다. 이 글은 현진건이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로 소설 『흑치상지』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다. 이 글에서 현진건은 “역사소설이라면 오직 사실(史實)에만 입각하는 것인 줄 아는 것이 보통의 개념”이지만 “소설로써 주제와 결구(結句)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⁴¹⁾

그러나 이 글은 그 자체로서 역사소설론이 아니며, 문학사 기술과는 거리가 먼 작가로서의 입장을 술회한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역사문학 장르에 대한 평가는 광복 이후에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복 직후 1948년 정음사에서 출간된 김사엽의 『국문학사』, 1949년 동방문화사에서 출간된 조운제의 『국문학사』 등에서는 ‘신화, 전설’ 등의 역사문학 장르뿐만 아니라 1900년대 역사·전기류, 1930년대 야담 또는 역사소설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63년 동국문학사에서 출간된 조운제의 『한국문학사』에서는 1930년대 이후 역사소설을 대중문학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민족문화와 활동의 하나로 객관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40) 백철, 위의 글, 181~182쪽.

41) 현진건, 「역사소설문제」, 『문장』 제1권 제11호, 1940.12. 126~129쪽.

歷史小說：一九三〇年以後 時代가 점점 不安하여져 가는 데 따라 主로 民族派의 文學家들이 現實面에서 自由스러운 作家의 活動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一種 現實을 逃避하는 意味에서 많이 歷史小說을 開拓하여 들어갔다. 李光洙, 金東仁, 玄鎮健, 朴鍾和 等の 作家들이 곧 그러한 인데, 이들은 다 現役의 少壯派 作家가 아니고, 先輩의 地位에 있는 既成 作家들이란 것에 意味가 있을 줄 아나, 그들은 該博한 知識을 가지고 옛날 歷史의인 史實에서 素材를 求해 現實에 아무 拘束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作者의 空想을 휘몰아 民族의 理想을 그려갔던 것이다. (中略) 그런데 歷史小說에는 大體 두 種類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卽 하나는 歷史와 事實에 忠實하여 그것을 現代의 意識에 살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歷史의 事實을 無視하는 것은 아니로되, 그 事實의인 史實을 全然 다른 角度에 풀어 現實의인 意味에 符合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作者 個人의 文學觀에서 決定될 일로서 第三者가 무엇이라 干涉할 必要는 없는 일이겠지만 大體로 李光洙나 朴鍾和 같은 이는 比較的 事實에 忠實하고자 하는 便이다.⁴²⁾

조운제의 문학사에서 역사소설은 ‘대중문학’, ‘1930년대 민족주의 문학’으로 평가되었으며, 비록 민족파의 역사소설이 ‘현실 도피’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을 찾은 것이며,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것과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이론은 백철의 서술과 차이가 없으나, ‘제3자로서 이에 대한 간섭을 할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단정한 것은 역사소설을 좀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살피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하겠다.

일제 강점기 이후 문학사 기술에서 역사소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역사문학의 또 다른 장르인 ‘전기, 전설, 야담, 야사’ 등에 대한 재인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안확의 『조선문학사』,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한국문학 전사를 구성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신화와 전설’, ‘야사’의 가치를 서술하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즉 문학사 서술에서 각 시대별로 존재하던 신화와 전설, 또는 역사적 사건과 야사류 등을 서술하

42) 조운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589쪽.

는 문제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러한 장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사 서술이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류의 효용성과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였음을 의미한다.

2) 역사적 사건의 형상화와 문학사

문학사 서술에서 역사문학의 효용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은 장르론적 관점에서 역사소설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의 효용성 문제에도 적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1930년대 한식(韓植)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학 담론은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었고, 임화를 비롯한 프로 문예이론가 또는 리얼리즘 논쟁에 뛰어들었던 다수의 평론가들은 역사소설 자체를 식민시대 부정적 사회현실을 형상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 도피 차원에서 탄생한 작품 정도로 여겼음을 고려할 때,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의 기본 전제는 ‘역사적 제재’에 있었다. 이를 전제한다면 신화나 전설, 야사와 야담이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라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제 강점기 문학사 서술 내용을 살펴볼 때,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인거(引據)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질문 2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유용해 보인다.

안학의 문학사 연구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제4장 근고문학(삼국~고려시대) 가운데 ‘전설적 방면’이다. 그는 “국민 서사시로 민간에 회자하여 차활동활(茶活童活: 차도 마시고 아이도 돌봄)의 희곡화를 작(作)한 것은 전설(傳說)에 재(在)하니”라고 하면서 『동국여지승람』, 『동사보유(東史補遺)』, 『동국통감(東國通鑑)』, 『삼국유사』, 『동경잡기(東京雜記)』 등을 인거하여, ‘혁거세, 연오랑세오녀, 김유신의 맹서, 분황사 석정(石井), 금척원(金尺院)’ 등을 삼국시대 국민 영웅전설이라고 설명하고, 전설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가치를 재해석하였다.

傳說的 方面 : 此時代에는 佛敎가 盛함으로 此를 隨하야 中原과 印度의 傳說 童話를 輸入함이 多한지라. 其中에는 佛의 傳說을 取하야 人名 地名

등을 改하여써 朝鮮化를 作함이 만흐니, 鬼神 靈驗, 狐妖蛇淫 등의 恐怪話가 後世 人心에 浸染되야 恐怖心과 文弱의 風을 養함은 實相 佛派의 說敎에서 出한 것이다. 東史綱目を 著한 安鼎福도 말하되 祖先 及 古偉人의 史蹟을 佛說에 系하야 虛誕한 傳說을 作하니 本來 精神이 만히 佛에 依하야 荒唐케 되엿다 云하니라. 그러나 一面으로 보면 佛蘭西가 十三世紀에 外國 傳說 七賢談을 輸入함가터 此等 傳說을 採람은 또한 文學의 材料를 豊富케 함에 在한 것으로도 思하노라.⁴³⁾

안화는 삼국시대 전설에 대하여, 불교의 영향에 따라 중국·인도의 전설을 수입하여 조선화하였고, 이에 따라 공괴화(恐怪話)가 많으며, 안정복과 같이 ‘허탄(虛誕)’하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문학 재료를 풍부하게 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불교 전설의 조선화는 최남선의 「조선역사통속강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개제 7 신화」에서 “전설을 역사로 보려 함은 소설을 실사회로 보는 이상의 어렵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전설의 가치는 어느 인물이나 사건을 전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인물, 그 사건을 붙인 시대 및 사회를 알려줌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⁴⁾

이렇듯 1920년대 초 안화와 최남선은 역사문학의 한 장르로서 ‘설화(신화, 전설)’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헌설화뿐만 아니라 구비문학으로서의 전설 채집의 기반을 제공한 셈이다. 더욱이 최남선이 『동명』 제12호(1922.11.19.)부터 제2권 제3호(1923.1.14.)에 연재했던 「외국으로서 귀화한 조선 고담(古談)」을 살펴보면, 「몽고의 흥부 놀부», 「인도의 토생원 별주부», 「은진 서낭자도 인도로부터», 「지봉유설의 일 사인(一士人)」 등과 같이, 외래 전설이 조선에 유입되어 조선의 전설로 변한 것이 많음을 고증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⁴⁵⁾

1920년대 초 역사 연구 또는 문학사 기술 차원에서 부각된 전설의 조선화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의 문학사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

43) 안화, 앞의 책, 1922, 55~56쪽.

44) 최남선, 「조선역사통속강화 개제(7) 신화」, 『동명』 제29호, 1922.10.29.

45) 감미정, 「일제 강점기 역사적 상징으로서의 전설과 문학적 서사로서의 전설의 의미」, 『한국민족문화』 8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 119~142쪽.

는 『조선소설사』 제2편 설화시대의 소설에서, ‘민담, 원화(譚話), 전설’ 등을 소설의 연원으로 보고, “설화는 장구한 시일에 자연도태를 당해서 흩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록을 초월한 고대의 신령설화(神靈說話)까지를 일일이 엿보기 어렵지만, 문헌이 점점 완비하여 오는 삼국 고려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고대 설화의 편린이라도 볼 수 있고, 또 구비로 전하는 미언(謎謠)도 설화의 잔해로써 존재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삼국 설화와 잔존한 문헌’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풍부한 전설과 신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문학의 연원임을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안학의 「무사도(武士道)」, 문일평의 「삼국시대의 문학」 등의 선행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태종 춘추공과 관련한 설명에서는 이은상의 『삼국사화집』을 근거하여 ‘가장 소설화한 로맨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⁴⁶⁾

이뿐만 아니라 〈홍길동전〉 이후 각종 소설에서 역사적 사건과 전설 등과의 관련성을 비교적 자세히 규명하고자 했는데, 예를 들어 〈춘향전〉의 경우 ‘벽오 이시발(李時發)의 실제잡’, ‘노신(盧愼)의 사실을 소설화한 것’, ‘남원 추녀 전설’, ‘남원 양진사 관련 가사’ 등 다양한 전설과의 관련성을 상세히 설명함⁴⁷⁾으로써 문학사에서 전설과 야사가 갖는 가치가 적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김태준은 안학, 최남선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중국 등지의 설화·전설의 유동 과정이나 해당 작품과 유사한 중국·일본의 작품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춘향전〉에서도 〈서상기(西廂記)〉, 〈도화선(桃花扇)〉 등의 중국 작품과 견주어 ‘우연히 공통하게 지어낸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숙영낭자전〉에서 ‘중국 한문제와 이부인(李夫人)의 고사’를 입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홍길동전〉, 〈전우치전〉 등이나 다종의 군담소설 고증에서 〈삼국연의〉, 〈수호전〉을 입증하거나, 〈콩쥐팍쥐전〉, 〈서동지전〉 등과 같은 동화·전설의 소설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중국·인도 설화의 영향과 견주는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에 나타나는 설화와 전설, 역사소설에

46) 김태준, 앞의 책, 1933, 13~22쪽.

47) 김태준, 위의 책, 1933, 143~145쪽.

대한 해석은 본질적으로 이 연구의 출발점인 질문 2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유용하다. 즉 안확의 문학사(최남선을 포함하여) 연구로부터 김태준의 소설사 연구에 나타나는 설화와 전설에 대한 관심은, 일제 강점기 신화와 전설에 대한 관심이 문학사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에 대한 인과관계는 문학사 연구자의 문학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1930년대 야사와 야담류, 역사소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프로문학에 기반하여 발생한 소설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리얼리즘 논쟁이나 대중소설론에서 야사와 야담을 폄하하거나 역사소설의 가치를 부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전사로서의 문학사 연구에서는 역사소설뿐만 아니라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의 가치를 은연 중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역사소설’을 비롯하여 다종의 역사문학 장르를 ‘통속적’, ‘현실도피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리얼리즘 논쟁⁴⁸⁾에서 확인되듯이, 역사적 사건과 배경의 형상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설야(韓雪野)는 「통속소설에 대하여」에서 역사소설을 ‘재판소 문학’, ‘대중소설’, ‘강담소설(講談小說)’과 같은 형태로 규정하고, “이광수나 윤백남의 경우처럼, 처음은 재미를 붙여 읽다가도 차차 읽어가는 사이에 권태와 몰취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소설을 읽어가는 사이에 더 알려짐이 없고, 더 깨쳐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⁴⁹⁾

그는 ‘알려짐’과 ‘깨쳐짐’이 ‘용의주도한 구성의 묘’, ‘묘사의 치밀’, ‘다각다채(多角多彩)한 사건 안배’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요소를 갖추어야 예술성을 갖는 것인데, “조선의 소위 역사소설은 단순한 오락과 유희에 그치는 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구성, 묘사, 사건 안배는 소설 형상화의 기본 조건이며, 진정한 역사소설은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생활

48) 일제 강점기 리얼리즘 논쟁은 프로 문예이론의 도입과 함께, 작품이 사회 현실과 계급의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된 논쟁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영천, 「일제강점기 및 해방기 한국 리얼리즘 시론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 23~35쪽을 참고할 수 있다.

49) 한설야, 「통속소설(通俗小說)에 대하여 1」, 『동아일보』, 1936.7.3.

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정당한 역사관과 통속적 범위를 넘어서는 형상화가 가능해야 고골리나 발자크와 같은 예술적인 역사소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이와 같이 1930년대 리얼리즘이나 통속소설 논쟁에서 당시 유행했던 야담과 역사소설을 폄하한 까닭은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하고 시대의식에 적합한 형상화가 필요함을 전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와 역사문학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역사소설, 전설, 야사와 야담류 독서물이 성행했음을 고려할 때, 당시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장르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되듯이, 일제 강점기 이후 역사문학 연구는 대부분 역사소설에 치우쳐 있다. 물론 전설에 대한 구비문학학적 연구나 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제재를 기반으로 한 독서물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문학 연구가 소설에 치우친 데는 일정한 요인이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가?(소설,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 등에 대한 인식과 평가)'라는 질문과 '일제 강점기 역사문학에 대한 관심이 문학사 연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소설,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 등의 효용성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당시의 문학사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질문 1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전제로서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 경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점은 1920년대 문학 개념어가 정착됨에

50) 한설야, 「통속소설에 대하여(1)-(5)」, 『동아일보』, 1936.7.3.~7.8.

따라 ‘언어 예술’의 관점에서 문학사를 기술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안화, 김동인, 김태준, 임화 등의 문학사 관련 서술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질문 1에 대한 해답은 근본적으로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 경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문학사 연구는 전사(또는 통사)로서 조선 문학사 전반을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와 근대 이후 이른바 ‘신문학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안화와 김태준은 전자를 대표하며, 김동인과 임화는 후자를 대표한다. 이들의 문학사 서술은 연구자의 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전사로서의 문학사에서는 조선문학(소설)의 역사적 발전을 증시하는 데 비해, 신문학사에서는 이식문학론 또는 정체성론 등에 기울어진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기술 태도는 역사문학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 신화, 전설, 야사와 야담류 등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 문학의 형식과 구조, 문체 차원에서 역사소설조차도 긍정하지 않는 경향이 우세하다.

대표적인 장르인 역사소설, 야담, 야사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제 강점기 문학사 기술에서 공통된 점은 1900년대 역사·전기류에 대해서는 전사와 신문학사 모두 일정한 해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역사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문학사 기술에서 이를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역사소설’을 문학사상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한 사례는 광복 직후 백철의 문학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1930년대의 역사소설을 ‘세태·시정소설’, ‘복고사상’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이로 보면 일제 강점기 전사로서의 문학사 연구에서 신화, 전설, 야사와 야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역사문학의 효용성 인정과도 관련될 것이다.

셋째, 질문 2에서 제기한 역사문학 연구와 문학사의 관계, 즉 역사문학의 효용성 문제는 문학사 기술에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인증 방식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형상화 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점은 1920년대 초 안화, 최남선 등에 의한 설화와 전설 연구가 전사로서의 문학사 연구의 기본 태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관련하여 김태준의 소설사에서

‘설화시대의 소설’을 설정한 것이나 홍길동전 이후 각종 소설 발달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전설을 인증하려 한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1930년대 신화와 전설, 야사와 야담류를 포함하여 역사소설 등을 ‘통속소설’, ‘오락과 유희물’로 간주한 것은 이 시기 활발했던 리얼리즘 논쟁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재해석이나 시대의식에 적합한 형상화 차원에서 통속물에 불과하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조선어문학회, 1931.

_____, 『조선소설사』, 청진서관, 1933.

안 화,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2. 논저

강미정, 「일제 강점기 역사적 상징으로서의 전설과 문학적 서사로서의 전설의 의미」, 『한국민족문화』 8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

강용훈, 「한국 근대 문학사 연구의 형성 과정 -당대(當代) 문학을 규정하는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 우리어문학회, 2014.

게오르그 루카치 저, 반성완 역, 『루카치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구지현·최재원,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朝鮮漢文學史)의 인용 문헌 활용 양상 연구」,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2022.

권영기, 「한일 근대 역사소설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김동욱, 『한국 야담문학의 연구』, 보고서, 2015.

김병길, 「한국 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김사엽, 『국문학사』, 정음사, 1948.

김성수, 「남북한 현대문학사 인식의 거리-북한의 일제 강점기 문학사 재검토」, 『민족문학사연구』 42,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0, 민족문학사학회, 2002.

_____, 「한국문학사 서술의 경과 -고전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 44, 민족문학사학회, 2010.

김지연, 「구활자본 역사영웅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치홍,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사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김현양, 「임화의 신문학사 인식과 전통-구조설과 신소설의 연속성-」,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 _____, 「안화의 조선민족담론과 상호중심주의-『조선문학사』와 『조선문명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 김형태, 「안화의 『조선문학사』 중 시가 문학 서술 방식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 류준필, 「金台俊의 『朝鮮小說史』와 『增補 朝鮮小說史』對比」, 『한국학보』 23-3, 일지사, 1997.
- _____,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그 지정학적 함의-자국(문)학 형성의 맥락에서」, 『한국학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문철주, 「한국 근대 역사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박종홍, 「일제강점기 한국 역사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송백헌, 「한국 근대 역사소설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신상필, 「김동인의 『야담』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야담의 서사 기획」, 『한민족문화연구』 57, 한민족문화학회, 2017.
- _____, 「야담의 근대적 전환과 대중문화로서의 기획」, 『동남아문논집』 45, 동남아문화회, 2018.
- 신승호, 「일제강점기 구활자본 역사소설 연구 : 임진왜란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양영길, 「한국 근대문학사 구성 방법 연구-일제 강점기에 저술된 문학사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 영주어문학회, 2000.
- 오현숙, 「김태준의 『증보 조선소설사』와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비교 -소설의 개념과 양식론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 윤영실, 「임화의 『개설신문학사』와 근대전환기 문화의 ‘메타모포시스」」, 『동방학지』 19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 윤영천, 「일제강점기 및 해방기 한국 리얼리즘 시론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 『한국학연구』 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
- 이동월, 「1920년대 후반 야담운동 연구」, 『한국말글학』 제23집, 한글말글학회, 2006.
- 이승윤, 「한국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1920~30년대 역사를 통한 민중계몽과 양식 실험-야담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배달말』 41, 배달말학회, 2007.
- 이윤석, 「김태준 『조선소설사』 검토」, 『동방학지』 16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 이재용, 「이광수와 김동인의 역사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필사본 중국 역사소설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종두, 「안학의 『조선문학사』와 『조선문명사』 비교 연구」,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 임규찬·한진일,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 임형택, 「한국근대의 “국문학”과 문학사 -1930년대 조윤제(趙潤濟)와 김태준(金台俊)의 조선문학연구」,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학회, 2011.
- 장문석, 「임화의 참고문헌: 「개설 신문학사」에 나타난 임화의 “학술적 글쓰기”의 성격 규명을 위한 관견(管見)」,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
- 장효현, 「김태준(金台俊)의 『조선소설사(朝鮮小說史)』 그 의의(意義)와 한계(限界)」,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 전경운,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서사 특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길수, 「『조선소설사』의 비판적 검토 -조선 후기 소설사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학회, 2017.
- 정명기, 『야담문학의 현단계』 1-3, 보고사, 2001.
- 정주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개작과 문학사적 기원으로서의 한글의 위상」, 『인문과학연구』 5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조윤제, 『국문학사』, 동방문화사, 1949.

_____,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최영성, 「김태준의 학술연구와 국고정리작업 -『조선한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6, 한민족어문학회, 2005.

최현희, 「문학주의적 주체론과 역사의 이념-임화의 신문학사론 재고-」, 『개념과소통』 19, 한림과학원, 2017.

홍석표, 「호적과 김태준의 문학사서술의 특징 -『백화문학사』와 『조선한문학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22, 중국어문학회, 2006.

홍성암, 「한국 근대 역사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Abstract〉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ang, Mi-Jeong

In this study, the question ‘What was the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historical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at is the influence? (What is the effectiveness of novels, myths and legends, historical events and historical stories?)’, and tried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rough research on the history of literature at the time.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e case of describing the overall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and the case of the so-called ‘history of new literature’ after the modern era.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as ‘overall histor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Joseon literature (novel) is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in the ‘new history of literature’, there are many cases that are inclined to the theory of transplant literature or the theory of identity. This difference also affects the perception of historical literature. Therefore, in ‘overall history’, the value of myths, legends, historical stories and historical stories is positively recognized, whereas in ‘new history of literature’, novels related to history tend to be viewed critically.(Question 1)

What is common in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that both ‘overall history’ and ‘new history of literature’ give a certain interpretation to historical works and biographies of characters in the 1900s. However, although many studies use the name historical novel,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in which it is set as an independent item in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Nevertheless, the influence of historical literature at that time can be

found in the handling of myths, legends, historical events and historical stories in the 'overall histor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Question 2).

* Key Words: Japanese Colonial Period, History and Literature, History of Literature, Overall History, New History of Literature

· 논문투고일: 2023년 6월 7일 ·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17일 ·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25일
--